‘경주 분황사 당간지주’ 보물 승격된다

문화재청 9월 28일 지정 예고
“통일신라 당간지주 전형으로
유일 귀부석 간대석 적용사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북도 유형문화재 경주 구화동 당간지주 전경. 문화재청은 기존 경주 구화동 당간지주를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경북도 유형문화재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가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로 명칭이 변경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경북도 유형문화재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를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예고했다”고 9월 28일 밝혔다.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는 분황사 입구 남쪽과 황룡사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신라 시대 분황사 가람의 규모와 배치 등을 고려하면 분황사에서 활용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문화재명을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로 변경해 지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당간지주는 당을 걸기 위한 당간을 고정하는 지지체로 통일신라 초기부터 사찰의 입구에 본격적으로 세워진 조형물이다.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사진 속 모양과 현재의 모습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외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지주 사이에 세웠던 당간은 남아있지 않지만, 조영 기법과 양식이 같은 두 지주와 당간을 받쳤던 귀부형 간대석이 원위치로 보이는 곳에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다. 귀부형의 간대석은 남아있는 통일신라 당간지주 중에서는 유일하다.

좌우 두 당간지주는 같은 조영 기법과 양식, 가공 수법을 보인다. 전체적인 형태는 사각 기둥모양인데, 상부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 정상부는 안쪽 면에서 바깥 면으로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도록 가공했다. 당간지주의 안쪽 면에서 바깥 면으로 관통하는 원형 간공(竿孔, 지름 15cm)은 상중하 3곳에 마련돼 당간을 고정토록 했다. 이처럼 당간지주의 상중하 3곳에 간공을 마련하여 당간을 고정하는 수법은 통일신라의 당간지주에서 많이 적용된 기법이다.

전체적인 형태와 외관 등이 현재 보물로 지정된 경주 망덕사지 당간지주, 경주 보문사지 당간지주, 경주 남간사지 당간지주 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이들 당간지주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경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요 사찰의 당간지주와 유사한 조영 기법과 양식을 보이고, 현존하는 통일신라 당간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귀부형 간대석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유사 당간지주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故 이건희 기증 ‘석보상절’ 초간본 공개

國博, 상설전시실서 전시
한글 활자로 만든 첫서적
갑인자 추정 활자도 공개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석보상절〉권 20, 21.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를 통해 공개된다.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석보상절〉 초간본이 일반에 공개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575돌 한글날을 맞아 9월 30일부터 상설전시관 1층 중근세관 조선1실에서 故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석보상절(釋譜詳節)〉초간본과 갑인자(甲寅字)로 추정되는 금속활자를 공개한다”고 9월 29일 밝혔다.

〈석보상절〉은 1447년(세종 29) 세종의 왕후인 소헌왕후 심씨(1395~1446)의 명복을 빌고자 간행된 책이다.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을 받아 부처의 일대기와 설법 등을 정리해 한글로 번역했다. 원래는 모두 24권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일부만 남아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권20과 21은 세종 대에 만든 한글 활자와 갑인자로 찍은 초간본이다. 같은 판본으로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동국대 도서관 소장본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 전시되는 〈석보상절〉은 그간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알려져 있었다”면서 “국민들이 실제로 관람하면서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되는 활자는 1434년(세종 16) 만들어진 ‘갑인자’로 추정되는 금속활자 150여 점이다. 이 활자들은 일제강점기 구입품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다수의 활자와는 입수 시기와 연유가 다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6월 조선 전기 것으로 추정된 서울 공평동 출토 활자들이 공개돼 서로 비교가 가능했다”면서 “이건희 콜렉션 중 갑인자 본 전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활자들이 갑인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활자를 본격 조사하여 갑인자로 추정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람객들이 전시된 〈석보상절〉과 갑인자 추정 활자를 보면서 한글과 문화재 기증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파키스탄 바흐 지역의 사원 유적 전경. 문화재청은 파키스탄 문화유산청과 함께 간다라 지역의 문화유산 공적개발사업을 5년 동안 추진한다.

간다라 유적 보존, 한국이 나선다

문화재청 · 파키스탄 문화유산청 업무협약

간다라 일원 유적서
공적개발 추진 예정

간다라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공적개발사업이 한국이 중심이 돼 이뤄진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9월 2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 문화유산청(청장 아시프 하이더 샤)과 문화유산 공적개발사업(ODA)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서면으로 이뤄졌다.

문화재청(수행기관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파키스탄 문화유산청 소속 고고학박물관국과 함께 세계유산 탁실라 유적 등을 포함한 간다라 지역 유적에 대한 기록화, 디지털 전시관 설치, 보존관리센터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한다.

파키스탄 문화유산청은 문화예술 분야를 비롯하여 유·무형 문화재 보존·활용·관리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고고학박물관국’, ‘국립예술원’, ‘국어진흥원’, ‘국립도서관’ 등 11개 소속기관을 두고 있다.

사업 시행지인 간다라 지역은 현재 파키스탄 하이버르-파흐툰흐와주의 중심도시인 페샤와르(Peshwar) 일대로 남북 약 70km, 동서 약 40km의 분지지역이다. 지정학적으로 북쪽은 스와트, 중앙아시아와 연결되고 동쪽으로 카쉬미르, 남쪽으로 인더스 강을 따라 인도 서부 해안가와 이어지면서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문화가 교류·융합하면서 독창성이 뛰어난 간다라 미술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간다라 지역의 찬란한 불교문화 자원과 우리나라의 뛰어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결합하여 관리 부실로 훼손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유적에 대한 웹기반 서비스를 제공·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향후 한국형 문화유산 공적개발사업을 이집트, 스리랑카, 중남미 등으로 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미술사硏 제1회 미술사 학술상 공모

2022년 1월 1~30일 접수

한국미술사 연구 진흥을 위한 미술사 학술상이 처음으로 공모된다.

(사)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한국미술사학의 발전을 위해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한 미술사 학술상을 제정하고 첫 논문을 공모한다”고 9월 26일 밝혔다.

학문 분야는 불교미술사와 일반 미술사로, 한국미술사 및 관련 있는 동아시아 미술사여야 한다. 지원 자격은 미술사 관계 박사 수료생 및 박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여야 한다.

제출 서류는 논문 1편과 지원서이며,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다. 접수는 한국미술사연구소 이메일(moonmd@hanmail.net)으로 하면 된다.

수상자 발표는 2월 2일다. 대상 1인에게는 상장 및 연구비 100만 원이, 우수상 1인에게는 상장 및 연구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학술지 〈강좌 미술사〉 논문 게재료 30만 원이 지원된다.

한국미술사연구소는 “한국 불교미술사와 미술사학의 발전을 위해 신진 연구자의 논문을 모집한다.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농선 대원 선사의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완역본 출간기념
할인 판매

수덕사 만공선사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30권을 역해하고 1,463칙 전 공안에 착어를 하신 바 있는 불조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선사께서 81권 화엄경과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드디어 출간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에 해당하는 화엄경 81권 완역 출간을 기념하여 81권 세트 12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300부 한정, 선착순 주문 받습니다.
차후로는 지면을 통한 화엄경 추가 출간 계획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문젠 010-3880-8980





